

카자흐스탄(Kazakhstan) 알마티주(州) 자르켄트시(市)와 잠불주(州) 구르다이시(市) 마싼치 지역의 둔간족

한동대학교 아시아지역연구소 KFR(Kazakhstan Field Research) 3기 훈련팀¹

1. 들어가는 말

카자흐스탄에는 135개의 민족이 존재한다. 그 중 카자흐민족이나 위구르민족은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는 민족이며, 이 민족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많은 사역자들이 카자흐스탄의 이 민족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며, 순교자의 피와 쌓인 기도로 인하여 많은 열매가 맺히고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소외 받고 있는 ‘둔간’이라는 민족이 있다. 카자흐스탄의 많은 소수민족들 중에 외롭고 슬픈 민족이 이 둔간 민족이다. 기독교 인구가 0.05% 미만인 카자흐스탄의 둔간민족에게는 그들을 위한 사역자가 단 2가정 뿐이다. 둔간 민족 중에서는 복음을 들어본 사람이 많지 않고, 들어본 사람도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0% 에 가까운 실정이다. 아랍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둔간인은 그 시작부터 이슬람의 영향 아래 있었다. 그들의 원래 이름인 후이족, 회족(=후이, Hui)은 믿는 민족이란 의미로 부르면서 생기게 된 것이다. 둔간 민족을 리서치 하면서, 8천만의 중국 후이족에게 복음을 전달할 파수꾼의 역할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카자흐스탄과 중앙 아시아의 둔간인들을 먼저 선택하여 부르실

¹ 위 보고서는 한동대학교 아시아지역연구소 KFR(Kazakhstan Field Research) 3기 훈련팀 에서 2006년 7월 6일 - 26 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자르켄트시와 잠불주 구르다이시 마싼치 지역을 중심으로 둔간족을 현장조사한 내용이다.

것이라는 마음을 받게 되었다. 이 보고서를 통하여 카자흐스탄의 둔간민족이 한국과 세계의 교회에 알려지고, 이 민족을 위한 기도의 용사들과 사역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며 기대한다.

2. 일반개요

(1) 종족명: 둔간(Dungan)

‘둔간’의 의미²: 동쪽에서 온 사람들, 중국 甘肅성(Gansu)의 동쪽 지역 둔간(Dungan)의 의미에 대해서 카자흐스탄의 둔간 사람들은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였는데, 중국에서 둔간 민족을 소개한 신문에 따르면 둔간을 ‘Gansu의 동쪽 지역’이라고 하였다.

(2) 인구: 45,000~50,000명

(3) 언어: 둔간어(Mandarin Chinese계의 언어), 러시아어

(4) 주요종교: 이슬람교

(5) 기독교인구: 0.1% 미만

(6) 분포

중국에서부터 온 둔간민족들은 간수성 출신의 둔간민족과 산시성 출신의 둔간민족으로 나뉜다. 간수성 출신의 둔간민족은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국경을 바로 넘어서 자르켄트쪽으로 이동해 왔다. 현재는 알마티, 아스타나 등 카자흐스탄의 전 지역으로 퍼져 각 지역에 소수가 분포하고 있다. 산시성 출신의 둔간민족은 중국과 키르기즈스탄의 국경을 넘어 키르기즈스탄의 북쪽지역과 카자흐스탄 잠불주 남쪽 키르기즈스탄 국경지대인 마싼치, 샤르쭈베와 인근 마을에 분포하고 있다. 또한 잠불주에도 둔간인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7) 정체성

둔간민족은 중국의 후이족(回族)으로부터 시작한다. 후이족은 아버지는 아랍인(페르시아인), 어머니는 중국인으로 형성된 민족이다. 아버지의 종교가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슬람교를 그들의 모종교로 채택하였다. 7세기쯤에

² 출처: <http://en.chinabroadcast.cn/1857/2004-7-9/53@130293.htm>

이러한 아랍상인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들은 중국인들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전통과 종교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슬람교를 믿는 이들의 여러 생활 모습에는 이슬람의 영향이 남아 있다. 이들이 130년 전 중국에서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로 넘어왔고 그 이후부터 중앙아시아로 이주해온 후이족을 러시아인들이 둔간인이라고 불렀다. ‘둔간’의 의미는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둔간이라는 이름은 이들 스스로가 만든 이름이 아닌, 주변민족에 의해서 의미가 부여된 이름이고,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을 후이족이라고 한다. 둔간이라는 이름은 주변민족에 의해서 습관화된 그들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현재 둔간인들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중앙아시아 3개국에 주로 분포한다. 카자흐스탄의 둔간인들은 중앙아시아와 중국의 둔간인들과 같이 주로 농사를 지으며, 정착생활을 한다. 그리고 만다린 계통의 중국어와 비슷한 둔간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현재는 소비에트연합의 영향을 받은 나라에 분포하게 됨으로 인해 현재 대다수의 사람들이 둔간어와 러시아어를 같이 쓴다. 중앙아시아의 둔간인들은 같은 지역에 거하는 위구르인들에 비해 더욱 강하게 전통과 이슬람 생활양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유지는 음식, 명절, 공휴일등의 전통의식에 잘 반영된다. 라마단 기간은 이들의 대표적인 명절이라고 할 수 있다.

(8) 역사

1) 당대

당대에 시안(西安)에서부터 비단길이 시작되면서 낭사는 동서양을 잇는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당나라가 번성하면서 비단길에서의 상업이 발달하자 당나라와 근접해 있던 아라비아(大食國)와 페르시아 등 중앙아시아의 각 모슬렘 민족 국가들이 무역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외교관, 상인, 군인 등이었다. 750년에 일어난 안사의 난(안녹산과 사사명이 일으킨 난) 때 당왕조는 이난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3천명의 아라비아 용병을 고용했는데, 이 용병들은 안사의 난이 진압 된 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한족 여성들과 결혼하여 정착하게 되었다. 또한 일부의 상인들도 중국에 체류하게 되었다.

2) 송대

탈라스 전투 이후 당이 비단길의 주도권을 잃은 후에도 송나라가 국제 무역을 장려하여 서역과의 무역은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중앙 아시아의 상인과 대사들이 계속해서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 때 낭사는 다시 한번 서역으로 통하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되었으나, 이때는 육로를 서하가 막고 있어서 많은 상인들이 해상통로를 이용하게 되어 낭사 지역은 당나라 때와 같은 번성을 누리지는 못하였다.

3) 원대

원나라 때는 많은 서역의 후이후이(回回)인 들이 중국으로 들어온 시기이다. 1227년 몽고군이 서하를 멸망시키고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 대량의 후이후이군을 뽑아 서하 지역에 주둔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목양과 수비를 맡게 하였다. 원나라의 전국 통일전쟁이 끝난 이후, 오랜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을 다시 개발하기 위해 이러한 군대의 목양활동이 임무화 되었고, 많은 주둔구가 설치되었다. 지역의 후이후이 군은 군인과 평민의 두 가지 신분을 갖게 되었고, 점차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 때 닝샤에도 역시 많은 후이후이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원나라 닝샤 후이족 기원에 대한 또 하나의 역사적 사실은 서하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몽고 종왕(宗王: 봉건제도에서의 분봉왕정도의 지위)인 아난다(阿難答)와 그가 관할한 15만의 군인의 대부분이 이슬람교에 귀의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아난다는(약 AD1267- 1307년) 후빠리에(忽必烈: 홀필열)의 손자로서 서안의 왕의 지위에 있었고 서하 지역을 다스렸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그는 어릴 때부터 중앙아시아의 모슬렘 교육을 받았다. 주둔 지역인 탕우(唐兀)는 서역으로 통하는 교통의 중심지로 원래 많은 후이후이인들이 분포되어 있던 지역이었다. 그의 통치지역이 넓어짐에 따라 아난다는 서북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세력이 되었다. 나중에 그의 관할 밑에 있는 15만의 몽고군대 전부가 이슬람교로 귀의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이 지역의 모슬렘 세력이 더 커지게 되었고, 나중에 후이후이민족이 형성 발전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원나라 때 비교적 좋은 정치적 대우와 경제적 지위로 인해 닝샤를 포함한 서북지역으로 들어온 후이후이인들은 비교적 안정된 발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안정된 발전은 100년도 안되어 닝샤를 포함한 서북지역이 중국에서 가장 큰 후이후이 민족의 거주지를 형성하게 하였고, 중국에서 후이족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4) 명대

명조는 왕권 확립과 안정을 위해 소수민족에 대한 강력한 한화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내용으로 첫 째, 소수민족 고유의 언어 대신에 한어를 사용할 것을 강요했고, 둘 째, 민족 내혼을 금하고 민족 혼혈 정책을 실시했으며, 셋 째, 소수민족의 문화를 말살하고 한족문화를 형성하려고 했다.

주원장이 명을 건국할 때 후이족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명대 전기에는 후이족의 안정적인 발전과 인구 발전에 비교적 좋은 영향을 미쳤다. 또한

명조는 종교에 대해서는 관대한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슬람이 종교적으로 그다지 탄압 받지 않았다. 그러나 명대 중기에 왕조의 유지를 위해 만리장성 이북의 몽고족에 대한 관계가 악화됨으로 인해 비단길을 통해 들어오던 아라비아와 페르시아의 무슬림 상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에 남아 있던 후이족들은 중국 내에서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했다. 이에 이슬람이 편승하여 종교적인 독자성을 가지고 중국에서의 후이족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이슬람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후이후이인이 이주해와서 링조우와 고원(固原)에 정착하였다. 이러한 집단은 원대에 형성되었던 후이족 거주지와 연합해 더 큰 거주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5) 청대

청대 초기 닝샤 지역의 후이족은 상당히 큰 규모를 형성했다. 청대에 이슬람교의 세 교파(수니파, 순협파, 소비파)중 가장 소수파인 순협파와 청왕조간에 분쟁이 있었는데, 원인은 후이족지방의 광산과 수목에 대한 다툼이었다. 닝샤의 후이족도 청해, 감숙, 운남의 후이족과 더불어 이 분쟁에 참여했다.

6) 1870년 이후³

19세기 중엽에 타이핑 폭동(Taiping Rebellion)이 있었는데, 중국의 봉건제도와 후이족에 대한 차별과 약탈에 대항하여 일어난 폭동이었다. 이 폭동은 큰 황폐함을 만들어 냈다. 산시, 간수, 닝시아 후이족의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이 혁명에 가담하였고 이 폭동은 '후이소수민족 전쟁'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그들의 폭동이 실패한 이후 8백만명의 후이족이 중국인(청조)에 의해 죽었다. 1877년에 살아남은 1만명 가량의 사람들이 쫓아내 지도록 위협을 받았다. 중국에 남아 있던 후이족 들은 학살 때문에 산지 등으로 흩어져서 목숨을 부지했다. 그들은 천산산맥을 지나는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국경인 서쪽을 향해서 나아갔다. 1877년 겨울 처음으로 천산을 넘어 비엔후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키르기즈스탄과 카자흐스탄 국경지역으로 오게 되었다. 그 피난에서 3314명이 살아 남았고, 중앙 아시아에서 정착하게 되었다. 그 이후 2번째는 1932년에, 3번째는 1959년, 1962년에 후이족이 중국으로부터 중앙아시아로 이동했다. 이전에 러시아 영토였던 Qiuhe강 유역 근처에서 정착하게 되었다. 처음 중앙아시아로 이동한 후이족이 정착했던 지역은 키르기즈스탄의 토크막(Tokmak)이란 지역이었다. 러시아 정부는 그들을

³ 출처: <http://en.chinabroadcast.cn/1857/2004-7-9/53@130293.htm>

2006년 7월 카자흐스탄 마싼치, 자르켄트 마을의 둔간인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주로 카자흐스탄내의 둔간민족친목회 장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기록, 편집하였다.

받아들였고, 4666헥타르의 땅을 제공하고 10년 동안 세금을 받지 않았다. 이 때 러시아 정부가 후이족에게 제공했던 땅이 바로 현재 카자흐스탄의 마싼치 마을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고향에서 가져온 씨앗을 이용하여 작물과 야채들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사람들은 후이족을 '둔간사람, 둔간민족' 이라고 불렀는데 둔간(東干)의 의미는 '간수성(Gansu)의 동쪽지역' 이라는 뜻이다. 2007년이 되면, 둔간민족이 중국에서 넘어온 지 130주년이 되는 해이다.

(9) 기원

이슬람은 당나라의 번성기(A.D. 618-906)에 중국에 소개되었다. 아랍과 페르시아의 상인과 뱃사람들은 항해해 와서 팡뚱과 중국 남동부의 항구 도시에 정착하였으며, 이슬람교가 만들어진 직후에 이 종교를 소개했다. 무슬림 군인들은 757년에 중국 황실이 반란을 진압하는 것을 돕기 위해 중앙아시아를 거쳐오면서 내륙지역에 이슬람을 소개했다. 이러한 아랍인, 페르시아인, 중앙아시아인 중 거의 모든 남자들이 그 지역의 한족 여성과 결혼하여 중국에 남았으며,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를 혼성 외국어로 사용하였다. 그들은 "야만인 정착촌"이라는 특별구역에서 살았으며, 그 곳에서 그들은 자기 고향의 관습에 따라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았다. 무슬림과 한인이 결혼하여 낳은 아이들이 무슬림으로서 자라고 외국의 무슬림들이 다시 또 몇 세기에 걸쳐 중국으로 계속 이주해오면서 무슬림들은 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차례 무슬림의 주요 유입은 몽골족에게서 시작되었는데, 그들은 13세기에 중국을 정복하여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의 장인, 학자, 행정가들을 수 천명씩 데려와서 자기들이 중국을 통치하는 것을 돕게 했다. 무슬림들은 제국의 재정을 감독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도 다른 고위직에 임명되었다.

중국에서 처음 7세기 동안, 무슬림들은 구별되는 외국인 소수민족으로 남아있었지만, 다음 5세기 동안 그들은 다른 나라의 무슬림 세계와 접촉이 비교적 줄어들었다. 한족이 1368년에 몽골을 진압하자, 상당히 분노스러웠던 외국의 영향을 일소하고자 노력했으며 따라서 외국어, 외국 이름, 문화의 사용을 금지하고 외국의 여행도 제한했다. 유럽인들이 아랍인들로부터 해로를 장악하자, 이것이 또 무슬림들이 중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막게 되었다. 바로 이 무렵에 중국의 무슬림들은 한족의 이름과 의복, 음식 관습을 받아들이고 일상언어로서 중국어를 말함으로써 한족의 방식에 동화되고 중국화하게 되었다. 또한 계속해서 한족의 여성과 결혼하고 한족의 아이를 입양하며 때로는 한족을 개종시켜서 무슬림의 수를 늘려나갔으며, 동시에 외모로나 문화적으로나 한족과 점점 더 유사하게 되었다. 무슬림들은 아랍인, 야만인, 외국인이라고 불려지지 않게 되었으며 대신 새로운 이름인 후이후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중국에 있어서 무슬림 역사의 다음 국면은 한족과 후이족 사이의 격렬한

종족분쟁이었다. 16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중국 북서부의 무슬림들(회, 살라르 등)과 중국 남서부 윈난성의 후이족은 지방 한족과 정부에 대해 일련의 반란을 일으켰으며, 여기서 1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고 전해진다. 종족분쟁을 더 악화시킨 것은 무슬림 공동체 그 안에서도 심각한 파벌 분열이 생겼다는 점이며, 두드러진 것 중 하나는 나쉬반드(Naqshbandi) 근본주의와 개혁사상의 영향을 받은 소위 신교파 지지자들과 중국 이슬람의 기존 관행을 견지하고자 하는 구교파 지지자들간의 분열이었다.⁴

(10) 종교

카자흐스탄 둔간민족은 100% 온건파 하나파(hanafite, 수니파의 4학파 중의 하나로 시대에 따른 율법의 변경을 인정하는 파) 무슬림이다. 둔간민족의 기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버지가 아랍과 페르시아의 상인, 군인이었고 어머니는 중국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종교를 따라서 그들의 문화양식과 생활 모습의 처음부터 이슬람교의 영향이 나타났다. 중국은 강한 회교도들인 이 민족을 회교를 믿는 민족이란 의미로 “회족(=회, Hui)” 이라고 불렀다.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해 온지 120년이 지난 지금도 각 마을에는 10개 이상의 모스크가 존재하며 모스크 안에 있는 학교에서 방과후에도 계속 아랍어와 코란에 대해서 공부하는 등 종교적인 관습을 계속 유지해오고 있다.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둔간인들의 사이에서 메카순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모스크도 예전보다 더 많이 짓고 있다. 이들은 젊은 나이에는 신앙심이 강하지 않지만, 40대가 넘어선 후부터 신앙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도시화 된 둔간인들은 현대 문명과 러시아 문화의 영향을 받아 젊은이들의 약 1/3 은 자신의 민족 신앙인 이슬람 신앙에 대해서 갈등하기도 한다.

(11) 문화

중국의 명조 이전에는 이슬람의 문화를 민족의 문화로 고수하고 있던 후이족들이 중국에서 외국인이 되어 생활을 하였다. 명조 때에는 소수민족문화 말살 정책이 행해졌는데, 명조는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는 관대하였고, 건국 할 때 후이족의 도움을 받아서 후이족의 이슬람 문화를 말살하지 않았다. 명조 때에 몽고족과 왕조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비단길이 막힘으로 아라비아 상인들이 중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고, 후이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슬람문화 가운데 찾게 되었다.

1368년에 한족이 몽골을 제압하고, 불만이었던 외국의 문화를 차단하였다. 정부는 외국어, 외국 이름, 문화의 사용을 금지하고 외국의 여행도 제한했다. 이 무렵에 중국의 무슬림들은 한족의 이름과 의복, 음식 관습을 받아들이고 일상언어로서 중국어를 말함으로써 한족의 방식에 동화되고 중국화하게 되었다. 또한 계속해서

4 출처: <http://blog.naver.com/kdw8739/140002811618> --

한족의 여성과 결혼하고 한족의 아이를 입양하며 때로는 한족을 개종시켜서 무슬림의 수를 늘려나갔으며, 동시에 외모로나 문화적으로나 한족과 점점 더 유사하게 되었다. 그 이후 이 무슬림들이 후이족(둔간족) 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둔간 민족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이슬람 민족이기 때문에 구르반아이트, 라만단 등의 명절을 철저히 지키며 이슬람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한족의 문화도 가지고 있다.

130년 전 중국으로부터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해 온 둔간 인들은, 다민족 국가인 카자흐스탄에서 살면서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카자흐스탄은 소비에트 연합의 국가였기 때문에 러시아의 문화 영향을 받았으며, 또한 다민족이 섞여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카자흐, 위구르, 고려인, 등의 문화가 섞여서 둔간인들에게 혼합된 문화가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 둔간민족에게 전통 문화로 남아있는 것은 결혼식 문화이다. 결혼식에는 둔간의 전통 복장을 입고, 신부는 전통의상을 입으며 예식에 참여한다. 또한 이슬람의 명절인 라만단, 구르반아이트 등의 절기를 철저히 지키는 등, 다민족 국가에서 섞인 문화로 인하여, 라그만(둔간음식) 비쉬파르막(카작음식) 김치(고려음식) 등의 음식을 모든 민족이 공유하며 비슷한 음식문화를 가지고 있다.

(12) 기독교상황

카자흐스탄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소수 둔간인들의 기독교 상황은 정확하게 조사할 수 없었고, 다민족 교회에 출석하는 둔간인들이 매우 적게 분포하기도 한다. 둔간마을에 세워진 교회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있다고 해도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협력과 연동이 되지 않는다. 알마티에는 공식적으로 둔간인을 위한 교회가 하나 있으며, 이 교회에서 개척한 가정교회는 4개가 있다. 가정 교회의 사역자는 신학교를 마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아니고, 현지 교회의 주축들이 가정교회를 이끌고 있으며, 가정 교회의 예배는 신자들의 삶 나눔을 주로 하며 찬양과 말씀도 같이 본다. 카자흐스탄의 둔간민족을 향한 사역자, 선교사님은 현재 2가정 뿐이다. 알마티에 있는 둔간인을 위한 교회의 교인 숫자는 40명 정도 된다. (2006년 여름)

카자흐스탄의 둔간 사람들은 둔간어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둔간어로 쓸 줄은 모르고, 둔간어가 죽어가는 상황 이기 때문에, 둔간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고, 러시아어로 된 성경은 이미 카자흐스탄에 널리 보급되어 있다. 둔간어로 된 복음 테이프나, 전도지, 홍보영상은 아직 만들어 지지 않은 상태이다. 둔간인을 향한 사역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선교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⁵⁾

5 현지 사역자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3. 잠볼주(州) 구르다이시(市) 마싼치 지역 둔간족

(1) 일반개요

1) 지역개관

카자흐스탄의 구 수도 알마티(Almaty)와 키르기즈스탄의 수도 비쉬켄(Bishkek)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가다 보면, 국경에서 5분 떨어진 게오르기예브카(Georgyevka)라는 지역이 나오고, 이곳에서 동쪽으로 1시간정도 떨어진 거리에 마싼치(Masanchi)⁶ 마을이 있다. 이 지역에는 마싼치, 자임까, 카라수, 울랄르바뜨르, 샤르쭈비에 5개의 둔간 마을이 있고, 이외에도 주변에 작은 여러 마을들(예: 구르다빅)이 있다. 이 마을들 중에서 마싼치는 가장 중심이 되는 마을이다. 이 지역에서는 키르기즈스탄의 토크막(Tokmak)마을(둔간마을)이 아주 잘 보이고, 실제로도 자주 왕래하며 가깝게 지내는 편이다. 소비에트연합시절에는 키르기즈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큰 구분이 없었으므로, 현재도 마싼치는 토크막마을까지 마싼치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이다. 이 지역사람들은 간단한 통행증만 있으면, 국경을 넘어 쉽게 토크막(Tokmak)에 갈 수 있다. 마싼치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부인이 토크막(Tokmak) 출신인 사람이 많고, 친척이 토크막에 사는 경우도 많았다.

2) 마을의 역사 및 의의

1877년 겨울 비엔후가 이끄는 군대가 처음으로 키르기즈스탄의 토크막이란 마을에 도착했다. 이후에 러시아 정부에서 마싼치 주변 지역을 둔간민족에게 주었고, 1878년부터 둔간인들이 이 마을에 살게 되었다. 3차에 걸쳐, 중국의 둔간인들이 카자흐스탄으로 넘어왔다. 마싼치 마을의 이름은 카라쿠누스⁷ → 니콜라이 → 마싼치로 바뀌었다. 검은 머리의 둔간인들이 검은 옷을 입고, 밭에서 앉아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것에서 마을 이름이 지어졌다.

마싼치는 원래 30~40%가 독일인, 러시아, 카작 사람이었는데, 5~10년 전에 생활습관이 달라서 많이 이사 가고, 지금은 거의 완전히 둔간마을이 되었다.(연방이 해체되면서 많이 이동해 간듯하다.)

이 지역의 둔간사람들은 마싼치를 잉빰이라고도 부른다. 잉빰은 military place for army라는 뜻이다. 어떤 종교적 의미는 없고 그들이 중국에서 와서 군대가 이곳에 정착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마싼치 마을은 둔간인들이 중국에서 넘어와서 처음 정착했던 땅이며,

⁶ 마싼치의 정식 주소는 잠볼주 구르다이시 마싼치마을이다. 마싼치 주변에는 산이 있고, 멀리 천산맥도 보였다. 강과 호수도 있다.

⁷ 카라쿠누스라는 이름의 뜻은 검은 벌레라는 뜻이다.

카자흐스탄의 여러 둔간 마을 중에서 가장 둔간의 전통과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3) 종족분포 및 인구

마싼치는 10,000명 정도, 샤르쭈비에는 1500가정 정도, 구르다빅은 6000명 정도의 둔간인들이 살고 있다. 마싼치에서는 매년 3~400명의 아기들이 태어난다. 30~40년 전에는 도시로 일자리를 얻으러 많이 가서, 인구가 많이 줄었다. 하지만, 지금은 적당히 인구가 다시 증가하여 현 상태의 인구수가 되었다. 현재, 인구이동은 크게 없는 편이며, 청년들의 경우 대학교 공부를 위해 타지로 이동하기도 한다.

마싼치를 포함한 이 주변지역은 대부분 둔간 민족이 살고 있다. 마싼치는 99%정도가 둔간인이며, 샤르쭈비에는 2~3가정만 카작가정이고, 나머지는 둔간가정이다. 구르다빅이란 작은 마을에는 비교적 둔간인이 적은 편이다. 500가정 정도만 둔간인이다. 구르다빅에서 아이들 중의 80%정도가 둔간인이다. 구르다빅이란 마을에는 고려인 의사가 1명 있고, 마싼치에는 둔간인과 결혼한 고려인이 한 명 살고 있다.

4) 언어

문화적으로 그들은 중국계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아랍, 페르시아, 그리고 투르크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일반적으로 많은 둔간인들은 그들 자신의 언어와 함께 카자흐어를 사용하며, 젊은이들은 러시아어도 할 줄 안다. 그들의 언어인 둔간어는 만다린 중국어(Mandarin Chinese)의 일종이지만 키릴문자를 쓰며 4성을 사용하는 중국어와는 달리 3성을 사용한다.⁸

소비에트연합의 영향하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는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마싼치 주변 마을에서도 러시아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거의 대부분 러시아어를 사용할 줄 알았다. 카자흐어는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알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았다. 이들은 자신의 언어인 둔간어를 집에서 배우기 때문에 어린아이들까지 다 민족어인 둔간어를 알고 있으며, 이 지역의 학교에서 주 중에 2시간 정도 따로 둔간어 교육을 받기도 한다. 집에서는 주로 둔간어를 사용하고, 마을에서는 러시아어를 사용한다. 그렇지만, 마을에서도 둔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고, 집에서도 꼭 둔간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어와 섞어서 사용한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둔간어는 중국어와 달리 3성이라고 하지만, 이 말은 학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여, 아직까지는 3성으로 보지만 점차 4성으로 변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사용되는 둔간어는 고어이기

⁸ 출처 http://www.kcm.co.kr/bethany/p_code5/305.html

때문에, 현재 중국 후이족이 사용하는 언어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둔간인들은 둔간어를 말할 줄 알지만, 쓸 줄은 모른다.

둔간어는 문자가 따로 없고, 둔간어를 키릴 문자를 이용해 표기한 글이 있다. 처음에 둔간어를 문자로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한 사람은 야쓰르쉐바자이다. 현재 둔간 글은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둔간 글로는 일반 책도 출판되지 않는다. 교육용으로만 둔간 글로 된 책이 출판된다. 마싼치의 학교 옆 박물관에서 둔간 글로 기록된 책이 전시되어 있었다.

5) 경제

둔간인들은 주로 쌀농사를 짓거나 사탕무우같은 야채를 재배하는 농부들이며, 많은 사람들이 젖소를 함께 기른다. 게다가 일부는 아편을 재배하기도 한다. 농부들은 자신의 지도자, 의사, 교사들과 함께 "콜호즈(kolkhoz)" 라는 집단농장에서 거주한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일부의 사람들은 작가, 언어학자, 역사학자, 시인, 신문사 편집자 일을 한다.

콜호즈라는 집단농장은 소비에트연합 시절의 이야기였다. 현재는 큰 농장을 개인이 소유하여, 가족이나 친족끼리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마을에서 가족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구르다빅에서 마싼치로 가는 도로 주변에는 넓은 농장들이 많이 보였다. 주로 야채와 수박 등의 과일을 재배하고, 여름에는 농장에서 수확한 수박을 시장의 곳곳에서 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둔간인들은 주로 장사를 많이 하며, 장사와 동시에 농장도 함께 경영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둔간인들은 주로 두 가지 직업을 동시에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 달에 은퇴한 사람들은 보통 100불 정도를 벌고, 보통사람들은 200불 정도 번다. 이는 카자흐스탄의 평균 소득이 100 달러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둔간인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젊은이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비즈니스 직업을 선호한다. 여자들은 집에서 수를 놓은 이불이나 그 외의 수놓은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서 팔기도 한다. 이것은 생계수단이 아닌 여자들이 할 수 있는 부업에 속한다.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제품들이 이 마을에도 많은데, 종이, 사탕, 야채, 고추, 사과 등을 수입한다. 사람들이 입는 옷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이라고 한다. 마싼치는 비쉬켄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쉬켄에 가서 물건을 사오기도 한다. 키르키즈스탄의 수도이므로 제품이 더 다양하고, 카자흐스탄보다 경제수준이 낮기 때문에 더 싼 값에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다.

마싼치는 시골이기 때문에 서비스 업이 별로 없고, 사람들 사이에서 서비스 업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었다. 둔간인들은 장사에 많이 종사한다. 카자흐스탄 내에서 둔간인들은 성실하고, 부지런하여, 잘 사는 편이다. 마을에서 특별히 잘

살거나 가난한 사람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의 빈부격차가 크지는 않았다. 가정마다 1~2대의 차를 소유하고 있다.

(2) 생활조건

1) 식생활

둔간의 전통음식으로는 ‘라그만’이 있다. 사람들은 이 음식을 좋아하여, 매일 한끼 정도는 라그만을 먹는다고 하였다. 라그만은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국물이 많은 둔간 전통식 라그만이 있고, 소스를 끼얹는 식의 라그만도 있다. 물에 삶아낸 면발에 피망 등의 야채와 고기를 기름에 볶은 소스를 얹어서 먹는다. 가난한 집에서는 고기를 사용하지 못하여 피망 등의 야채 만으로 라그만 소스를 만들기도 한다. 둔간인들은 이슬람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뿐만 아니라 당나귀 고기도 먹지 않았다.

둔간사람들의 주식은 라그만과 만두이며, 그 다음은 뽕밥(기름밥)이고, 다른 카작 사람들처럼 빵도 자주 먹는다. 카자흐스탄은 다민족국가이므로 여러 민족 문화가 섞여서 나타난다. 식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민족고유의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음식들이 섞여서 공유되고 있다. 둔간인들은 고려인들이 먹는 밥을 먹기도 하고, 커다란 난과 크랩빵 또한 자주 먹는다. 베쉬바르막(다섯개의 손가락의 집어 먹는다는 의미, 예전에는 이렇게 먹었지만, 요즘은 젓가락으로 먹는다.)이라는 카작 전통 국수도 즐겨 먹는다. 둔간사람들은 젓가락을 이용하여 식사한다.

2) 의복

남자들은 머리에 이슬람 모자를 쓰고 다닌다. 하얀색의 모자도 있고, 색깔이나 모스크 그림 등의 장식이 들어간 모자들도 있다.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여자들은 여름인데도, 긴 팔과 긴 바지의 이슬람식 옷을 입고 있었다.상의가 길어서 무릎까지 내려오는 옷이었다. 중동처럼 무채색 계통의 옷이 아닌, 화려한 장식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옷이었고, 둔간인들이 좋아하는 붉은 계통의 옷 색깔이 많았다. 여자들은 머리에 꼭 두건을 쓰고 있었는데, 이슬람식 문화 때문이다. 두건도 전반적으로 화려한 것들이 많았다. 둔간 전통 의상은 중국 고유 의상과 비슷했다.

3) 주거

보통의 카자흐스탄 시골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주택들이었다. 집 안 벽에는 카펫이 걸려 있었고, 화장실은 채래식으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집 안에는 사우나실이 하나씩 있었다. 둔간인 가정집의 특이한 점으로는 ‘딱잔’이라는 평상을 들 수 있다.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 안이나 집 밖에서 볼 수 있다. 중국식 부뚜막이 있는데 이곳에 불을 지펴서 요리를 하기도 한다. 주로 나뭇가지를 이용하지만, 더 빨리 음식을 요리하고자 할 때는 마른 해바라기 줄기를 나뭇가지 대신 이용한다. 여름에는 밖에서 주방을 놓고, 평상에서 음식을 먹으며, 겨울에는 집안에서 요리해서 먹는다.

4) 위생의료

마싼치 주변의 각 마을마다 병원이 하나씩 있다. 구르다빅 마을의 병원 조사: 정부시설의 병원이 마을에 하나 있었다. 이 병원에는 의사 6명, 간호사 13명, 사무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내과(고려인), 소아과, 안과, 치과, 산부인과 진료를 개설하고 있었다. 병원비는 무료였으며 마을 사람들 전부를 담당하고 있었다. 병원 안의 위생에 대한 개념도 좋은 편이고, 시설도 전반적으로 좋은 편에 속했다. 하루에 60-80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으며, 사람들은 한번 올 때 마다 주사를 1번 정도 맞는다고 한다. 다양한 의약품이 사용되고 있으며 26명까지 입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다.

마싼치에 있는 병원은 정부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이용해야 한다. 병원비는 비싼 편이다. (카자흐스탄에는 여러 단계의 병원이 있다. 6장 종이의 내용 적을 것) 마싼치 둔간인들의 평균수명은 보통 60-65세 정도 이고, 더 오래 사는 사람도 있다.

5) 환경문제, 물, 식수

마싼치는 산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강이 있어서, 물이 비교적 풍부한 지역이다. 울랄르바뜨르 근처에는 호수가 있으며 구르다빅은 물이 많지 않은 지역이다. 마싼치와 샤르쭈비에를 연결하는 도로 주변에는 예전에 사용했던 관개시설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6) 교통

키르기즈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와는 차로 40분 거리이다. 알마티와는 차로 4-5시간정도 거리이다. 알마티와 비슈케크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포장 상태가 좋은 편이지만, 게오르기예브카에서부터 마싼치를 연결하는 도로의 상태는 포장은 되어 있었지만, 중간중간 도로가 파여서 길이 고르지 못하고, 울퉁불퉁한 부분도 있었다.

7) 개발상태

카자흐스탄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마싼치 마을도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 물론 대도시와는 크게 차이가 나지만, 현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마싼치도 지난 10년 동안 많이 변화했고 개발되고 있다고 한다.

(3) 사회구조

1) 가족구조

대가족형태이다. 한 마을에 친척들이 함께 살고 있으며 매일 접할 수 있다. 중국에 친척들을 둔 집도 있었고, 키르기즈스탄의 토크마크이란 마을에 친척이 있는 사람도 있었다. 중국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둔간인들에게는 가부장적 가족 구조 형태가 남아있다. 가족 내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회의를 하지만, 대부분 결정권을 갖는 사람은 집안에서 가장 나이 많은 남자이다.

둔간족은 중국에서는 평균 한 가정당 1-3명의 아이를 가졌는데, 카자흐스탄에 와서는 평균 8-10명의 아이를 낳아 길렀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자녀 교육비 등의 이유로 인해 4-5명의 자녀만 둔다고 한다. 어른들을 공경하는 관습이 있다.

2) 종족공동체 구조

마싼치는 거의 99%가 둔간인이다. 마을 자체가 둔간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3) 리더십, 지배구조

보통 마을의 아킴(마을의 대표)은 나라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카작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마싼치와 샤르쭈비예의 아킴은 둔간인이었다. 마을이 거의 99%둔간인이라서, 둔간인이 아킴이 되도록 나라에서 허락해 주었다. 마싼치의 아킴은 마을 사람들이 투표로 뽑는다.

4) 사회적 모임

토크마크에서는 키르기즈스탄의 퍽박⁹이 있어서, 둔간 사람들끼리 서로의 보호를 위한 모임이 있다. 둔간공동체이며, 여러가지를 회의한다. 그러나 이런 모임이 울랄라바뜨르, 마싼치, 샤르쭈비예에는 없고, 알마티에는 이런 둔간모임이 있다.

⁹ 현지지역자로부터 들은 정보임. 최근에 키르기즈스탄의 비슈켄에서 민족주의로 인하여서 둔간인들에게 총을 쏘는 등 퍽박이 이루어 졌었다. 둔간인들이 부유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기심으로 인한 것인 것 같다. 러시아로 100가정의 둔간가정이 떠났고, 카작으로도 많이 오고 있다. 이런 일 이후에 키르기즈스탄에서는 둔간인이 점점 빠져나가는 추세이다.

공식적이진 않으나, 매일밤 교제를 위해 모이는 청년모임이 있다. 모여서 레슬링이나 축구 등을 한다. 공식적이진 않으나, 매일밤 모이는 청년모임이 있다. 레슬링이나 축구 등을 한다.

둔간 커뮤니티 웹사이트가 있다.(www.dungane-br.freeneet.kz)

(4) 문화

1) 예술 양식

둔간전통의 문양을 박물관에서 볼 수 있었다.

2) 전통문화

카작의 여러 문화와 섞여서 이들에게 전통문화는 많이 남아 있지 않다. 가장 전통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것은 결혼식이다.

전통놀이 같은 것도 없다. 특별한 전통춤은 없지만, 둔간 전통 음악이 있고, 둔간음악밴드가 있다.

마을에 둔간 박물관이 있어서, 전통을 지키고, 유지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박물관에는 둔간어로 된 책과, 둔간예복, 비엔후 장군이 처음 썼던 그릇, 130여년 전의 옷과 가구 등이 있었으며, 그 시절의 사진자료 등이 있었다.

3) 결혼식

둔간의 전통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은 결혼식이다. 결혼식 예복은 신부가 14살 정도부터 직접 손으로 만든다. 옷의 곳곳에 수를 놓아서 만든다. 의복뿐만 아니라, 신발과 버선도 수를 놓아서 만든다. 그리고 결혼식 때 벽에 장식하는 천(바르차)도 수를 놓아서 직접 만든다. 결혼식 예복은 요즘은 보통 만들어서 입고, 어떤 사람들은 빌려서 입기도 한다. 결혼식은 여자가 태어나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치장하는 날이다. 결혼식에는 친척들이 다 모이고, 1주일 동안 지속된다.

정혼자는 부모가 정해주기도 하고, 요즘의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선택하고, 부모의 허락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양부모와 이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여자가 17살 이상이 되면 늙었다고 해서 결혼하기가 힘들다. 보통 18살이 되기 전에 결혼한다. 남자는 25~27살에 결혼한다.

결혼시에는 정혼금이 필요하다. 남자가 여자의 집에 1000달러 정도를 준다. 이 돈으로 여자는 목걸이, 팔찌, 귀걸이, 시계 등의 폐물을 산다. 여자는 이불과

베게, 예복을 준비하고, 돈은 필요 없다. 이 이불과 예복 등을 화려한 상자에 넣어서 신랑의 집으로 가지고 온다. 방문한 집들에서 이 상자가 집 안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자유로운 가정인 경우 다른 민족과 결혼이 가능하다. 그런데 보통은 둔간민족과 결혼하며, 둔간민족이 아닐 경우에도 같은 이슬람민족이어야 한다. 그런데 마싼치 마을에 고려인 부인을 둔 둔간인이 1명 있었다. 다른 민족과, 이슬람이 아닌 민족과의 결혼을 보통 부모가 싫어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 고려인들은 부모들이 좋아하는 편이라고 한다. 고려인과 둔간인이 비슷하게 생겨서 가깝게 친척처럼 느껴지고, 둔간과 고려인이 결혼하면 잘 사는 편이라고 했다.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오는 것으로 결혼식이 시작된다. 둔간인들은 차에 붉은 천으로 장식한 웨딩카에 신부를 태워서 데리고 온다. 신부의 차가 도착하면,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돈을 건넨다. 신부는 이 때에 이불과 베게, 옷 예물 등을 가져온다. 물라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축하의 말을 한다. 피로연으로 빨랍과 치킨, 라그만 등의 음식을 먹는다. 음식을 먹고, 11시경부터 사람들은 음악을 틀고 밤 늦도록 가벼운 춤을 춘다. 신랑은 서 있고, 신부가 오랫동안 춤을 춘다. 하객들도 함께 춤을 춘다. 결혼식 때 춤을 추는 것이 전통이다. 3시간 이상 춤을 추고, 춤이 끝나면 다시 음식을 먹는다.

4) 대중문화

러시아어로 발행되는 둔간 신문이 있다. 마싼치에서 2006년에 1호 신문 발간되었다. 1주일에 한번씩 발행된다. 각 곳에 흩어져 사는 둔간인들의 소식, 이슬람과 관련된 기사가 실려 있었다.

‘샤르쭈비에’에는 컴퓨터 클럽(pc방)이 5개 정도 있다. 인터넷은 이용할 수 없고, 게임이나 문서작업용으로 이용한다. 인터넷은 1~2달 안으로 마을에 들어 온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극장은 없고, 집에서 주로 본다. 저녁마다 친구들과 영화를 본다고 하는 청년도 있었다. 중국, 러시아, 아랍 영화 등을 주로 본다. 한국 영화는 알려져 있지 않았고, 사람들이 한국드라마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람들이 운동을 좋아하는데, 축구, 탁구를 많이 좋아한다고 말했다. 태권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며,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5) 기타

둔간인들은 20번째 생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특별히 축하한다.
남자들은 주로 악수로 인사하고, 여자와는 악수하지 않는다.
이 마을에는 둔간 사람들끼리 살아서 문화적 변동이 별로 없다.

6) 의식

① 정부

정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소비에트 연합에서 독립 후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경제적 수준은 비슷한 편이었지만, 지금은 경제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통령의 경제개발정책의 성공으로 인해, 카자흐스탄이 잘 살게 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소비에트 시절과 현재를 비교해 보면, 정치형태는 자유가 있는 지금이 좋지만, 소비에트 시절에는 빈민이 없었는데, 지금은 빈민이 있고 빈부차이가 생기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 민주화 되었지만, 더 많은 민주주의가 실행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② 다른 민족과의 관계성

둔간인의 정체성이 강한지, 카작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한지를 명확히 하기는 어렵다.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은 둔간인이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또한 지금 카자흐스탄의 둔간 사람들에게는 카자흐스탄이 모국가이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보다 러시아를 더 가깝게 느낀다. 사람을 보았을 때는 중국사람이 비슷하게 생겼으므로, 가깝다고 느끼지만, 나라를 보면, 러시아를 더 가깝게 느낀다. 오랫동안 러시아의 문화에 익숙하게 살아왔고, 또한 현재 러시아말을 쓰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한다.

마싼치는 둔간인들만 살지만, 만약 타 종족과 섞여있는 곳에 가게 되면, 동족간의 정이나 감정을 좀 더 강하게 느낀다.

중국인들의 펑박으로 인해서 카자흐스탄 땅으로 선조들이 오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중국에 대해 나쁜 감정은 없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고, 또한 그들의 어머니는 중국인이었기 때문에, 중국은 친구라고 생각한다.

카자흐스탄의 위구르인들과 둔간인들은 어느 정도 비슷한 점들이 있다. 이슬람이라는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 뿌리민족을 중국 땅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둔간인들은 한국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외모가 닮아서, 편하고, 친척처럼 생각이 든다고 한다. 한국인과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관계와 중국의 회족과 카자흐스탄의 둔간민족도 비슷한 관계이다. 둔간인들은 자신 스스로를 또한 회족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미 이주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회족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은 별로 없으며, 현재의 생활에 만족한다. 둔간인들은 현재 회족과 교류하고 있으며, 이들은 둔간인들에게 친구이며, 사업파트너이기도 하다. 둔간인들과 회족은 얼굴 생김새가 조금은 다른데, 둔간인은 카작이나 러시아인들과 섞이고, 둔간인들은 중국한족들과 섞이기도 하기 때문에 둔간인들이 중국회족보다 조금 더 하얀 편이다.

(5) 종교

1) 이슬람

현재 사람들이 종교적인 일에 열중하려고 하는 분위기이다. 경제 성장도 잘 안되고, 마을의 경제가 침체되어 이러한 종교적인 일에 더욱 열심을 내려는 노력이 있다. 모스크에 안 가면, 저 사람은 모스크에 안 가서 이상하고, 신앙심이 없다고 눈치를 받는다. 하루 다섯번 모스크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앙심이 깊지 않은 사람들이나 젊은이들은 금요일에만 모스크에 기도하러 간다. 몸이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모스크에 찾아가기도 한다. 라마단(일반력 12월, 이슬람력 9월)에는 아침, 점심을 먹지 않고, 해가 진 5시 이후에만 먹는다. 라마단 기간이 끝나면, 이슬람의 가장 큰 축제인 구르바나이트 기간이다. 이 마을에서도 이 기간을 가장 큰 축제로 생각한다. 마싼치에는 큰 모스크가 2개 있고, 작은 모스크가 10개 있다.

여자는 모스크에 들어갈 수 없고, 남자들이 12살 이후부터 모스크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다. 여자들은 주로 집에서 기도한다. 모스크 옆에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육관이 있었다. 이것의 이름은 뎃드레체이다. 이곳에서는 아랍어와 코란등을 배우는데,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교가 마치면, 이곳에서 교육을 받는다. 보통 모든 학생들은 정규교육을 받는 10년 동안 모스크 옆의 교육관에서 공부한다. 더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파키스탄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한 이후에 이맘이나 물라가 된다.

어렸을 때부터 이슬람을 배우기 때문에, 내가 왜 이슬람교인가 하는 의문이 별로 없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이람인이기 때문에, 둔간인들은 자신은 당연히 이슬람이라고 생각한다. 마싼치에서 2006년 1월에 110명 정도가 메카를

다녀왔다. 버스를 대절해서 친구들,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갔다. 매년 마싼치에서 메카에 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메카에 다녀오는데 2~3천 달러가 필요하다.

둔간인들은 카자흐스탄의 어떤 다른 무슬림들보다 강한 이슬람이다. 그들은 그들의 계명을 중요시 하며, 술과 담배를 금하고, 돼지고기도 먹지 않는다. 실제로 마을 식당 안에는 담배와 술을 금하는 표시가 있었고, 우리가 한 상점에 들어갔을 때, 주인이 가게 안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고 알려주기도 하였다. 마싼치 마을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라마블교나 기독교 천주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사이 좋게 지낼 수 있다고 했다. 이슬람교의 계명에 이웃과 사이 좋게 지내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이다.

2) 기독교

마싼치에는 기독교인도 없고, 교회도 없다.

(6) 교육

시골이라서 교육의 문제가 있다. 생활수준도 도시에 비해서 낮아서 조금 불만이다. ‘샤르쭈비에’에는 4개의 학교, 올라르바뜨르에는 1개의 학교가 있다. 마싼치의 40년된 학교(중, 고등)에는 2006년 기준으로 1100명 가량의 학생들이 있다. 이 학교는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었다. 이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들은 다양한 인종이 조금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둔간인 들이다. 이 학교 주변에는 특별히 둔간 전통 박물관이 있었는데, 정부의 지원이 아닌, 사람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서 만들었다.

학교에서는 컴퓨터와 영어를 필수적으로 배우고, 카작어와 러시아어 둔간어도 배운다. 컴퓨터는 일주일에 4번 정도 배우는데, 이 때에는 워드, 엑셀, 포토샵 등을 배운다. 마싼치에는 대학교가 없다. 그래서 러시아, 중국, 미국, 알마티, 키르키즈스탄 등으로 대학을 가는 둔간 학생들이 많이 있다. 예전에는 70%가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지금은 물가가 많이 올라서 교육비가 비싸져서 2005년에는 35%의 학생만이 대학교에 입학했다.

부모들이 도시로 자녀들을 공부시키러 적게 보낸 것의 이유는 교육비가 비싸기 때문에, 첫째, 둘째 까지만 공부시킨다. 도시로 공부 보내면 나쁜데 빠질 수 있고, 마약도 할 수 있고, 위험하고, 이슬람 신앙이 약해지기 때문에 약간 꺼린다. 소비에트연합 시절에 마싼치에 유치원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7) 여성

보수적인 집에서는 남자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여자는 집 밖에 나갈 수 있다. 마싼치 마을에는 여자가 조금 더 많고, 중국유교영향으로 남아선호사상이 조금 남아있는 편이다. 젊은 세대의 경우 여자들에게 별다른 차별은 없지만, 여자들 스스로 외부로 나가는 걸 부끄러워해서, 대학을 안가는 경우도 많다. 결혼한 여성은 주로 청소, 요리, 발일 등을 한다. 여성들의 모임, 계 같은 것은 없고, 그냥 이웃들과 왕래를 자주 하고, 주로 친척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한다. 여성들은 코란을 읽으려 모이기도 한다.

(8) 마싼치 마을의 특징(기타)

이슬람의 교리를 비교적 사람들이 지키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담배, 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또한 마을에 범죄도 거의 없는 편이다. 사람들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평화로운 마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게 살고 있으며, 마을에 큰 기근이나, 전쟁, 혁명 등도 없었다고 한다.

47개의 국가에서 둔간민족을 조사하기 위해 여러 번 다녀갔다. 하지만, 한국에서 마싼치에 방문한 것은 KFR3기 훈련팀 처음이었다. 마을에서 별다른 불편한 점은 없고, 교육수준과 생활수준이 도시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조금 불만이다.

4. 알마티주 자르켄트시 둔간족

(1) 일반개요

1) 지역개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실크로드를 따라 북동쪽으로 차를 타고 5시간 정도 가면 자르켄트가 나온다. 이 곳은 중국과의 접경지대로서 중국 국경까지는 40km정도 떨어져 있어서 이 도시 사람들은 자주 중국과 카자흐스탄을 오고 갈 수 있다. 자르켄트에서 카자흐스탄의 하르고스라는 마을까지는 39km정도 떨어져있고 이 마을에서 중국의 국경 근처 마을까지 가는데 2km정도가 걸린다.

2) 도시의 역사 및 의의

자르켄트의 예전 이름은 반필로프였다. 반필로프는 사람이름인데 세계2차 대전 당시 히틀러가 모스크바를 반필로프가 지키고 있는 지역으로 공격하려고 하자 반필로프와 28명의사람들은 히틀러가 오는 것을 막아 섰는데 히틀러가 그들의

용기를 보고 반필로프가 막아선 쪽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반필로프가 자르켄트 출신의 군인이기에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이 도시이름을 반필로프로 지었다. 이 도시에 예전에는 현재보다 더 많은 둔간사람들이 살았지만 이들이 알마티와 마싼치등으로 옮겨 갔다고 한다.

3) 종족분포 및 인구

이 도시에는 4만 5천명에서 5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지만 둔간인은 천 명 정도(전체인구의 약 2%)밖에 살지 않는다. 대부분 카자흐인(56%~58%)이고 그 외에 위구르인, 러시아인등이 있다.

4) 언어

소비에트연방의 영향으로 이 곳에 사는 대부분의 둔간인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러시아어를 할 줄 알았다. 단 둔간어가 중국의 칸수성에서 온 둔간사람들과 산시성에서 온 둔간사람들과 차이가 조금 있는데 칸수성에서 온 사람들의 둔간어가 현재 거주하는 자르켄트의 사람들이 쓰는 둔간어와 비슷하다고 한다. 또 이들의 언어는 중국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단어와 발음이 비슷한 것이 있었다. 단 이 마을에 사는 젊은 아이들은 둔간어를 알긴 하지만 평소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2) 경제

자르켄트에 사는 둔간인들은 근면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잘 사는 편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둔간인들은 농사를 짓거나 밭을 가꾸는 일을 많이 하는 편이다. 하지만 자르켄트에 사는 둔간인들은 15년전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다. 중국의 국경지대에 있어서 중국에 오고 가는 것이 쉬워 무역하기에 편하고 사람들이 자주 이 곳을 왕래하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어서 돈을 벌기 쉽기 때문이다. 또 이 곳에 여자들은 차와 둔간햄¹⁰을 만들어서 시장에 팔아 부수입을 올리기도 한다. 그 밖에 산에 나무가 많이 나서 중국에 팔기도 하며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팔기도 한다.

(3) 생활조건

1) 식생활

마싼치에 사는 둔간인과 특별히 차이점이 없었다. 전체적으로 라그만 같은 둔간 전통음식도 즐겨 찾기는 하지만 다른 민족음식도 자주 먹는 편이었다. 특별히

¹⁰ 둔간인들이 즐겨 먹는 햄으로서 일반 햄과 맛의 차이는 많이 나지 않는다.

자르켄트에는 둔간인 가족이 운영하는 둔간 음식을 파는 식당이 있었다.

2) **의복**

마싼치 같은 경우는 남자들은 흰색이나 회색계통의 옷을 주로 입고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전통적인 옷과 가까운 옷을 입었다. 하지만 자르켄트는 마싼치에 비해 도시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흰색이나 회색계통의 옷을 입되 더 다양한 색의 옷을 입는다. 여자들은 종종 전통적인 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지만 마싼치와는 달리 전통 옷을 입기 보다는 다른 카자흐스탄 사람들처럼 머리에 수건도 쓰지 않고 옷도 자유롭게 입었다.

3) **주거**

자르켄트에서는 둔간인들만의 특이한 집 구조나 집의 외형을 찾기 힘들었다. 카자흐스탄에 사는 다른 민족과 비슷한 집 구조와 외형을 가진 곳에서 살았고 마싼치보다는 도시적으로 발달되어서 잘 사는 둔간인들은 집의 크기도 컸으며 더 깔끔했고 집 안에 수세식 화장실을 가진 곳도 있다.

4) **위생의료**

자르켄트에는 한국의 종합병원 같은 규모의 병원이 하나 있다. 이 외에 종합병원 보다 작은 병원이 14개정도 있고 이보다 더 작은 병원이 5개 있다. 이 도시의 전체 의사는 총 145명이고 600여명이 의료업에 종사한다.

국영 병원인 이 종합병원은 건물이 3개있고 병실은 30개 에서 50개 정도가 있다. 총 24가지 종류의 병원과가 있고 의사는 55명정도 있으며 이 중 정형외과 쪽에 둔간인 의사 1명이 있다.

5) **교통**

자르켄트는 알마티에서 중국으로 가는 실크로드를 따라 가야 하는데 이 길의 상태는 예전에는 길이 울퉁불퉁해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보수공사가 이루어져 길 상태가 좋아졌다. 이 곳에서는 버스나 기차 같은 대중교통수단이 존재 하지 않고 택시를 이용하여 움직여야 한다. 특히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오는 사람들이 택시를 많이 이용한다.

6) **개발상태**

중국의 국경과 가까워 중국으로부터 물건이 수입되어 실제로 판매 되는 곳이므로 시장이 잘 발달 되어있다.

(4) 사회구조

1) 가족구조

보통 3대 정도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직장이나 학교를 위해 대도시에서 따로 살기도 한다. 둔간인들은 보통 이 도시에 친척들이 같이 모여 살기도 한다. 가족의 의사결정은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지만 가정의 의견을 주로 따른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해 준다. 이 마을에 있는 둔간 사람들은 보통 2~4명 정도의 아이를 낳는다.

2) 리더쉽, 지배구조

도시를 지배하고 이끄는 아킴이 존재한다. 카자흐스탄의 각 마을과 도시에 모두 아킴이 있는데 대부분 카자흐인이 아킴으로 된다. 둔간인들은 똑똑하고 근면하고 일을 잘 해 다른 민족에 비해 인정을 많이 받지만 높은 위치로 갈수록 차별과 제한이 있다.

3) 사회적 모임

카자흐스탄 정부의 다민족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각 마을과 도시마다 각 민족의 모임센터가 있다. 자르켄트 역시 이러한 둔간민족 모임센터가 있었다. 둔간사람들은 이 곳에 자주 모여서 서로의 소식도 묻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특별한 일에 관하여 회의를 하기도 한다.

(5) 문화

1) 축제

둔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슬렘이기 때문에 라마단이 가장 큰 축제이다. 그리고 라마단 100일 이후 구르반나이트라는 큰 명절이 있다. 그 외 이 곳 사람들이 주로 축제로 보내는 기간은 가족이나 친척의 결혼식 전후의 기간이다. 결혼식 기간에는 평소 입지 않은 둔간 전통 복장도 입고 평소에 만나지 못하던 친척들과 만나 결혼을 축하하고 함께 어울리며 교제를 한다. 결혼식은 마싼치의 둔간인과 같이 전통 결혼식을 하고 있다.

2) 문화적 특징

자르켄트는 둔간인들만 따로 모여 사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사는 곳이기 때문에 둔간인들이 그들의 문화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고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였다.

(6) 청년, 부녀자, 노인

1) 청년

자르켄트에는 젊은 둔간인이 많이 있는데 결혼식과 같은 잔치 때는 전통 옷을 입거나 전통 풍습을 따르고 있긴 하지만 이들은 전통적인 사상과 풍습에 얽매이기 보다는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청년들은 자르켄트보다 도시에서 살기를 더 원하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고 알마티와 같은 도시에서 대학을 간다거나 일을 하고 싶어한다. 이들은 무슬렘으로서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지만 보수적이지 않고 개방적인 종교관을 갖고 있다.

2) 부녀자

시골지역인 마싼치에 사는 둔간인 중 결혼한 여성은 남편의 허락 없이 쉽게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여성 혼자 직업을 갖는 것도 어려웠다. 하지만 자르켄트의 둔간인 여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 있고 직업도 가질 수 있다. 또 마싼치의 둔간 여성처럼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전통적인 의상을 입기보다는 자유롭게 옷을 입는다.

3) 노인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직업에서 은퇴한 뒤 특별한 일을 가지기 보다는 간단한 농사를 한다거나 집안에서 필요한 일을 한다. 종종 둔간센터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다.

(7) 종교

1) 이슬람

둔간인들은 99%가 무슬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자르켄트에 사는 둔간인들도 마찬가지다. 과거 구 소련시절에는 이슬람을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현재는 신앙관이나 단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둔간인들은 이슬람을 그들의 종교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자르켄트에 둔간인들이 모여사는 마을에 큰 모스크가 있는데 이 곳에는 다른 민족이 다니지 않고 거의 둔간인만 다녀가고 기도한다. 특별히 이 지역에는 못을 하나도 박지 않고 지은 모스크가 있었다. 1887년에 지어진 것으로 현재는 국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고 지금은 종교적인 박물관으로 바뀌었다.

2) 기독교

자르켄트에 교회는 카톨릭과 러시아 정교회를 제외하고 확실하게 4개의 교회가 있다. 하지만 둔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는 없을 뿐더러 둔간인들 중 크리스천으로 밝혀진 사람들도 없다.

5. 마싼치 지역과 자르켄트시의 둔간족 비교

(1) 서론

KFR 3기 훈련팀은 2006년 7월, 카자흐스탄 둔간 민족을 조사하였다. 특별히 카자흐스탄에서 키르기즈스탄 국경근처 마싼치 마을과, 중국국경 근처 자르켄트 도시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두 지역은 모두 둔간 복음화 에 있어서 중요성을 지니는 지역이다. 이 두 지역에 사는 둔간 민족을 조사한 결과, 같은 민족으로서 문화와 전통, 종교가 같지만, 지역적 차이로 인하여 여러 측면에서 두 지역 둔간인들은 차이점을 보였다. 그래서 KFR 3기 훈련팀은 이 두 지역을 비교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둔간 민족 선교전략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마싼치 지역의 중요성

마싼치 마을은 마싼치 주변 둔간마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다. 마싼치는 마싼치와 동일한 규모를 가진 샤르쭈비예와 더 작은 마을인 울랄르바뜨르, 자임까, 하리수등의 마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마싼치 마을은 카자흐스탄 내의 둔간민족의 마을뿐만 아니라 키르기즈스탄의 둔간마을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곳이다. 마싼치마을과 주변의 사람들은 키르기즈스탄 비자가 없어도, 간단한 통행증만 있으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 이로 인하여서 키르기즈스탄의 둔간인들과 카자흐스탄의 둔간인들이 다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웃 마을처럼 소식을 주고 받으며 서로에게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현재 키르기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둔간민족에 대한 핍박으로 인하여 키르기즈스탄의 둔간인들이 카자흐스탄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며, 마싼치와 인근의 마을로도 어느 정도의 인구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싼치마을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마싼치는 농업을 위주로 하는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정주문화를 기반으로 이미 공동체의 모습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총체적 선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미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는

기독교 지역사회 공동체로 나아가기에 더 수월한 이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공동체사회의 중심이 이슬람교라면, 이것은 넘어서야 할 벽이 될 수도 있다. 마싼치는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 사회이기 때문에, 마을의 경제 성장의 한계가 반드시 존재한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기독교적 지역사회의 개발을 추구하게 된다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독교적 지역사회 개발의 측면에서 마싼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역이다.

(3) 자르켄트시의 중요성

자르켄트 내에 둔간민족의 비율은2%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이 지역은 실크로드 길을 따라 중국으로 가는 관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적 시각에서 중요한 도시이다. 4만5천의 카자흐스탄 둔간민족 복음화의 중요성은 이들을 통한8천만의 중국 회족 복음화에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자르켄트는 카자흐스탄에서 중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중요한 선교적 요충지이다.

자르켄트에 거주하는 둔간인들은 도시에 사는 둔간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러시아의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도시화된 둔간인들의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싼치와는 다르게 다민족과 섞여 살고, 이 곳의 둔간인들이 다른 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성향을 많이 띠는 지역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종족 고유의 영향력 보다는 도시 전체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자르켄트에 사는 청소년과 청년들은 대부분이 알마티나 타 도시로 나가서 대학 공부를 한다. 비싼 그들의 등록금과 생활비의 지원이 가능한 것은, 이 도시의 경제력이 충분히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발전함에 따라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무역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에,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무역 관문도시인 자르켄트의 경제적 발전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주변 마을과 도시에 미치게 될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자르켄트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4) 마싼치와 자르켄트의 둔간인 비교, 지역별 비교

1) 둔간인들의 지역에 따른 개방화 정도

마싼치와 자르켄트의 둔간인의 개방화 정도를 비교해 보면, 자르켄트가 좀더

개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자르켄트는 둔간민족 만이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의 문화에 대해 익숙한 풍도가 이미 조성되어 있다. 게다가 자르켄트는 도시이기 때문에 개방적인 사고가 비교적 널리 퍼져 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러시아 음악이나 패션, 사고방식이 유행하고 있다. 중장년층은 사이에서는 의복의 형태에 따른 유행은 없지만 알마티나, 아스타나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자유로운 의복의 문화를 갖는다. 자르켄트의 둔간인들은 부유한 편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있는 가정에는 컴퓨터가 존재하고, 인터넷이 가능한 가정도 많이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젊은 사람들은 세계의 문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접할 기회가 많고, 인터넷뿐만 아니라 TV와 신문을 통해서도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수용하고 있다.

마싼치에 사는 둔간인들도 TV와 신문을 접하며 세계의 문화를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자르켄트의 둔간인들과 같은 문화 개방성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자르켄트의 청년들은 알마티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의 중심문화, 유행하는 문화를 경험하고 받아들인다. 마싼치에서도 키르키즈스탄의 비쉬켄이나 알마티, 아스타나 등으로 공부하러 나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 유효한 가부장적 권위로 인하여서 사회와 가게에서 젊은이들의 개방적인 의견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 세계의 문화를 접하고 개방적인 성향을 띤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아직 이들의 목소리가 작기 때문에 자르켄트에 비해 개방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마싼치의 사람들은 대부분 외부로 많이 나가지 않고 마을 안에서 장사를 하거나 농사를 하며 그들의 삶을 꾸려 나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가족구조가 유효하며 상대적으로 자르켄트의 둔간인에 비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2) 이슬람교

마싼치 사람들 순수하게 이슬람을 믿는다. 자신은 이슬람이기 때문에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게 안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글이 써있고, 식당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마싼치에 사는 둔간인들은 이슬람임을 나타내는 하얀색의 모자를 주로 쓰고 다닌다. 또한 요즘에는 마싼치 안에서 종교에 더 집중하는 마을 전체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노인들 중에 메카에 자주 다녀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웃 사람들 사이에서 모스크에 가자고 권유하는 일도 종종 생기고 있다. 모스크에 가지 않는 사람을 보고, 신앙심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종교의 자유의 권리를 주장하는 마싼치의 둔간인들 중에 이러한 강제적인 종교적 분위기에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주변의 눈초리 때문에, 사람들이 모스크에 자주 가게 되고, 이에 집중하게 된다. 마싼치의 큰 모스크 옆에 소속된 학교가 있는데, 여기서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아랍어와 이슬람의 교리, 코란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다. 그곳의 모스크 지도자는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환경에서 코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슬람 신앙에 대해 크게 고민하는 젊은이가 거의 없다. 마싼치의 사람들은 둔간인 이라면 당연히 이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자르켄트의 둔간인들도 동일하게 이슬람을 믿는다. 자르켄트에는 현재 짓고 있는 모스크가 많이 있다. 돈이 많은 사람이 현금을 하여서, 기존의 모스크를 더 크게 확장하고 있다. 자르켄트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짓고 있는 모스크도 많이 있다. 이곳의 사람들은 순수하게 믿는다고 보다는 형식적인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을 무시할 수는 없다. 자르켄트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슬람인지 모를 정도로 일반인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모든 종교적 관습과 예배에 다 참석을 하고 있다. 도시에 사는 젊은 둔간인들은 이슬람에 강한 애착을 보이지 않고 있고, 그저 형식적으로 부모님을 따라 이슬람을 믿는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에 대해 갈등하는 젊은이들이 존재한다. 둔간 사람들은 둔간인들 만의 모스크에 가고, 위구르인과 카자흐인은 둔간인들과 다른 모스크에 다닌다. 둔간인들 안에 다른 민족과 자신들을 종교 안에서도 구분 짓는 의식이 어렴풋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3) 지리적 의의

마싼치와 마싼치 인근의 마을들은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와 아스타나 등의 주요도시와의 교류가 거의 없는 편이다. 대신에 키르기즈스탄의 수도인 비슈케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비슈케크, 토크마크와의 교류가 활발하다. 카자흐스탄의 마싼치와 그 인근의 마을과 키르기즈스탄의 비슈케크와 그 주변에는 대부분의 중앙아시아의 둔간인이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마싼치에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마싼치 인근마을뿐만 아니라 키르기즈스탄과 중앙아시아까지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자르켄트는 중국 국경지대와 40km 정도 떨어진 카자흐스탄의 동쪽 편에 위치하고 있다. 이 도시는 중국에서 알마티로 가는 비단길 위에 위치해 있고, 중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가는 관문도시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류와 무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중국에 있는 후이족(회족)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비교적 개방적인 카자흐스탄에서 둔간민족이 먼저 복음화 되어 중국으로 복음이 동진하게 되면, 자르켄트는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관문도시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선교적 전략 요충도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르켄트가 가지는 지리적 의의가 크다.

4) 여성의 사회적 지위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마싼치와 자르켄트에서 대조적인 특징을 보인다. 자르켄트의 경우 1930년대 이전부터 이미 여성이 사회에서 선생님, 기자, 번역가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성의 사회적 권위가 많이 인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둔간민족은 가부장 중심의 사회인데 반해, 자르켄트의 둔간민족은 다민족의 영향과 도시문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현재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안정되어 있는 현실이다. 여성의 교육이 보장되어 있으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진학이 가능한 상황이고, 여성이 직접 운영하는 상점도 존재하는 등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마싼치는 둔간의 가부장적 가계제도가 지금도 유효한 지역이다. 여성들에게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다. 기회는 있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타지에서 공부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이유로 옛날부터 여성의 대학교육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싼치와 같은 시골의 경우 여성은 만 18세 정도에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게 된다. 마싼치의 대부분의 여성은 집안일을 하거나, 가족이나 친척이 소유한 밭에서 농사짓는 일을 돕는다. 자르켄트처럼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의 경우가 많지 않다. 가부장적 권위가 강한 집에서는 남자의 허락이 없으면, 집 밖에도 외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도 존재한다.

5) 기독교 현황

마싼치에 사는 둔간인과 자르켄트에 사는 둔간인 모두 기독교와 복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꾸란’에 나와 있는 ‘이웃과 사이 좋게 지내라’는 법을 지키기 위해 복음에 대해 거부감은 없지만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특히 마싼치에서는 둔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과 무슬림들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자르켄트에는 4개 정도의 교회가 있어서 과거에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둔간인이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 현재는 마싼치에는 교회가 존재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었던 둔간인도 밝혀지지 않았다.

(5) 결론

카자흐스탄의 둔간 민족을 일반화시켜 정의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들은 중국에서 이주해 왔지만 카자흐스탄에 정착하여 살면서, 민족적 특징과 문화가 많이 희석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마싼치와 자르켄트의 비교조사를 통해서 둔간인들은 지역에 따라 다른 특징들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는 지역이 다름에 따라 개방화 정도와

이슬람 신앙의 정도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전체의 둔간인들을 일반화하기 보다는 각 지역별로 둔간인들의 특징을 조사, 분석하여 그에 따른 선교적 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